

2017. 6. 5. [월] 언론보도

경인일보

2017년 06월 05일 (월)
10면 인물



경기도, 연천 DMZ 미술대회 29명 시상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연천에서 열린 '2017 DMZ 미술대회' 수상자 29명을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금촌고등학교 김은혜(1학년)양이 대상인 통일부장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이번 대상 수상작은 독창적 발상으로 주제인 'DMZ의 미래'와 '생명의 땅 DMZ'를 잘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최우수상(경기도지사상)은 최세현(금촌고)·남상연(신원중)·이려원(금촌초)·최선우(인천 동수초) 등 4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이밖에 우수상 4명, 장려상 4명, 입선 16명 등 24명이 상을 받았다.

김동근 부지사는 "앞으로 DMZ 미술대회를 전국 청소년 누구나 꼭 한번 참가하고 싶은 차별화된 미술대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규식·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6.9 X 14.4 cm

캔버스에 담은 DMZ 평화의 염원

도 'DMZ 미술대회' 시상식
금촌고 최은혜 학생 대상 수상
입상작 9일까지 청사서 전시



DMZ의 미래와 생명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화폭을 통해 그려보는 '2017 DMZ 미술대회' 시상식이 지난 2일 개최됐다. 사진=경기도청

파주 금촌고등학교 1학년 최은혜 학생이 올해 DMZ 미술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DMZ의 미래와 생명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화폭을 통해 그려보는 '2017 DMZ 미술대회' 시상식이 지난 2일 오후 3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렸다.

최은혜 학생은 독창적인 발상으로 대회 주제였던 'DMZ의 미래'와 '생명의 땅 DMZ'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대상(통일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서 최우수상(경기도지사상)은 주제의식을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구현해

낸 최세현(금촌고 1), 남상연(신원중 2), 이려원(금촌초 6), 최선우(인천 동수초 3)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우수 4명, 장려 4명, 입선 16명 등 24명의 학생도 수상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상을 수상한 최은혜 학생은 "즐거웠다는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했는데 상을 받아서 기쁘고, 대상을 처음으로 받아서

앞으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DMZ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었고, 주제인 생명을 푸른 나무로, 미래를 평화의 이미지인 비둘기로 그림에 담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대회의 입상작은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1층 로비에 전시되며 추후 DMZ 분야 도정시책

에 활용될 계획이다. 수상작품들은 경기도 DMZ 홈페이지(<http://dmz.gg.go.kr>)에서 볼 수 있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시상식에서 "어린 청소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즐길 줄 아는 어른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DMZ 미술대회를 전국의 청소년 누구나 꼭 한번 참가하고 싶은 차별화된 미술대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3일 연천에서 진행된 '2017 DMZ 미술대회'는 지난해 참가자 225명 보다 늘어난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문희숙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내빈, 수상자와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조윤성기자

23.2 X 12.1 cm

기호일보

청소년 눈으로 본 'DMZ의 미래'

2017년 06월 05일 (월)
03A면 종합

도, 2017 미술대회 시상식
금촌高 최은혜 대상 영예

경기도는 지난 2일 도 북부청사 로비에서 DMZ의 미래와 생명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화폭을

통해 그려 보는 '2017 DMZ 미술대회'의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대회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도 행정2부지사, 문희숙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내빈, 수상자

와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독창적인 발상으로 대회 주제였던 'DMZ의 미래'와 '생명의 땅 DMZ'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고등부 최은혜(금촌고 1년)학생이 대상(통일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최우수상(경기도지사상)은 주제의식을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구현해 낸 최세현(금촌고 1년)·남상연(신원중 2년)·이려원(금촌초 6년)·최선우(인천동수초 3년)학생이 수상했다. 이 밖에도 우수 4명, 장려 4명, 입선 16명 등 24명의 학생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입상작은 오는 9일까지 도 북부청사 1층 로비에 전시되며, 추후 DMZ 분야 도정 시책에 활용될 계획이다. 수상 작품들은 도 DMZ 홈페이지(<http://dmz.gg.go.kr>)에서 볼 수 있다.

대상을 수상한 최은혜 학생은 "대상을 처음으로 받아 앞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대회에 참가하기 전 DMZ에 대해 생각하며 생명을 푸른 나무로, 미래를 평화의 이미지인 비둘기로 그림에 담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14.8 X 14.8 cm